



CENTR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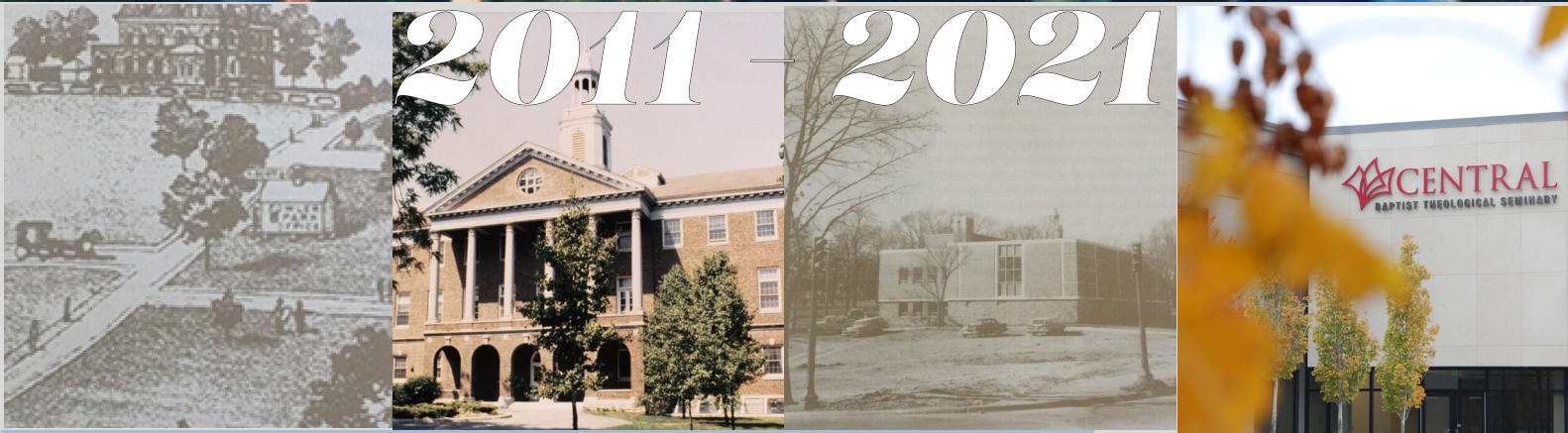
센트럴신학대학원

2021. 11. NO. 1

NEWSLETTER



1901 - 2021



2011 - 2021

COTENTS

- | | |
|------------|------------|
| 02 발간 인사말 | 07 신입생 스토리 |
| 03 중요학사일정 | 08 동문 스토리 |
| 04 학교소식 | 09 교수기고 |
| 05 센트럴 게시판 | 11 학생기고 |

발행일 2021년 11월 11일
 발행처 센트럴 한국부
 발행인 박 사무엘
 편집인 간사일동

디렉터 발간 인사말



1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가을에 한국부 소식지를 발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벌써 나왔어야 했다는 늦은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학교와 한국부의 다양한 면모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첫 호를 발행합니다. 계획하기로는 매년 계절마다 1번씩 4회 (2, 5, 8, 11월) 학생들과 교수님들, 동문들의 소식을 담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첫 호에서는 학교의 주요일정을 알리고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주요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한국부 뉴스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의 로고가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로고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수님과 신입생, 졸업생의 글이나 이야기를 담은 코너를 통해 센트럴 한국부 공동체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홍승민 교수의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시각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신입생 이희정자매와 졸업생 이경희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한국부에 입학하였고, 한국부 과정을 졸업한 후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잠시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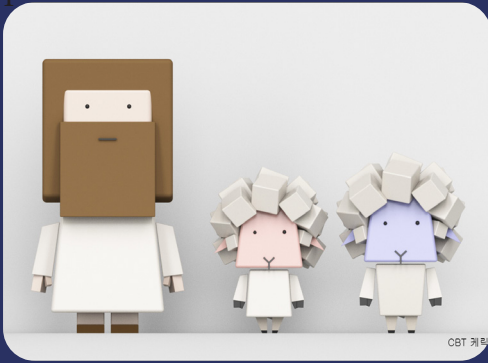
특히 이번 첫 호에 자유기고문을 나눠주신 하숙자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나누고 싶은 글이나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120/10주년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 소식지에 소식을 나눠주실 각 지역의 기자들을 모집합니다. 자원해서 한국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편집인 이지윤 간사에게 (ks@cbts.edu)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 120주년과 한국부 10주년을 경축하면서, 앞으로서의 10년과 120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한국부 공동체의 성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12 일

한국부 디렉터 박 사무엘



중요학사일정

2021



- 11월 15일 : 10 am 봄학기 수강신청 안내
: 그린 장학금 신청 시작
- 11월 25-26일: 휴무 (Thanksgiving)
- 12월 1일 : I-20 연장신청 마감일.
- 12월 6일 한국부 연합채플
- 12월 13일 : 가을학기 종강
: 봄학기 원서지원 마감 (미국내)
- 12월 14 일 : 겨울방학 시작

2022

- 1월 5일 (10am) : 2022 봄학기 한국부 populi를 통한
수강신청 마감
- 1월 12일 : 오프라인 수강변경신청 마감
- 1월 18일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1월 24일 : 봄학기 수업 시작
- 1월 31일 : 봄학기 수강변경신청 마감
- 2월 1일 : 한국부 연합채플
- 2월 11일 : 2021 가을학기 졸업생들 OPT신청 최종 마감일
- 4월 13일 수 (10am) : 2022 가을학기 수강신청 시작
- 5월 2일 : 한국부 연합채플
- 5/13: 종강

학교소식



• 센트럴 120주년/한국부 10주년 기념 예배

올해는 센트럴신학대학원이 설립된 지 120주년 한국부 개설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튜브와 Zoom 예배를 통하여 120/10 주년을 기념하며 돌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Thursday, November 11, 2021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6:00 - 7:00 p.m. (CST) 저녁 6시부터 7시 (중부 표준시)



• 2021 가을 종강 예배

12월 6일 한국부 연합채플이 줌으로 있습니다. 센트럴 120주년 한국부 10주년 기념 설교시리즈 3번째로 달라스 뉴송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신 박인화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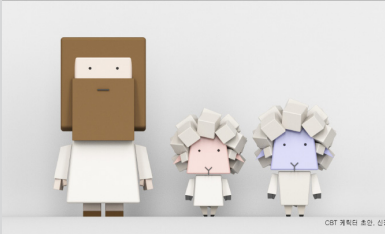
• 센트럴의 브랜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금년에 설립 120주년 맞고 한국부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하며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센트럴은 브랜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과 글꼴에 관한 엄선된 직원 및 교수진과의 대화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경험이 풍부한 그래픽 디자이너와 브랜드 전문가와의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로고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를 추가하여, 우리는 이제 센트럴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누가 되고 싶은지를 더 잘 반영하는 로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시작으로 모든 출판 간행물을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센트럴 게시판

• 센트럴 120주년 기념 공모전 입상



이번 공모전에 센트럴신학대학원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신 신정원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정원 학생은 한국에서 많은 영화작업을 하였고 이번에 120주년 기념영상도 제작하여 주셨습니다.

• 장학금 수혜자 명단

센트럴신학대학원은 그린장학금이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장학금/ 재단장학금 / 추천장학금/독지가의 장학금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중 추천장학금은 주변분들을 학교에 추천을 해주시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뉴송교회와 제자침례교회 장학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urvey.alchemer.com/s3/6601461/New-Song-Church-and-Disciple-Baptist-Church-Scholarship-Application>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장학금: 정진옥, 김성정, 안상숙, 안유애순, 허미호, 이은호, 변재옥, 홍기창

추천장학금: 김정훈, 손현주, 김수연

• 동문회 소식

제6대 동문회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대 회장단이 7명으로 구성되어 비 정기적으로 zoom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부 10주년을 되돌아 보면서 졸업후 동문들의 삶과 사역을 화보로 소개하는 간이 책자를 (스프링화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6대 회장 우인균 목사

• 뉴스레터 콘텐츠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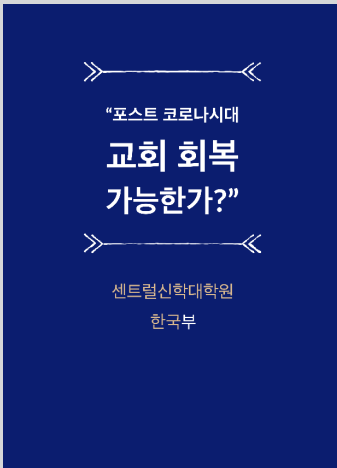
센트럴소식지는 학생분들의 내용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11개의 지역분교의 다양한 소식과 계절의 변화, 음식 등 그 속에서 일상의 잔잔한 기쁨 감사 애환등을 사진이나 글로 보내주시면 뉴스레터에 센트럴의 한가족으로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께겐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교수 소식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 민규선(상담), 윤대식(신학), 곽한영(신학) 정승연(설교)

CBTS 120주년/ 한국부 10주년 기념으로, 한국부 교수님들께서 합작하여 만든 책이 출간 될 예정입니다. 참여 해 주신, 박사무엘, 김수정, 노세영, 박인화, 박찬영, 박현수, 박화춘, 방승호, 정웅, 홍순성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제목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회 회복 가능한가?”



제1부 교회, 거룩성, 영성 회복

1. 교회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성 회복(박사무엘)
2. 거룩성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룩성 회복 (노세영)
3. 영성 회복 / 포스트 코로나 교회의 이기적 영성 (김수정)

제2부 설교, 전도, 윤리 회복

4. 설교 회복 / 미디어 통합형 설교 (정재웅)
5. 교회사명 회복 / 제자 재생산: 역병이 기회가 되다! (박인화)
6. 윤리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직업윤리 (박화춘)
7. 상담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상담 (박찬영)

제3부 가정, 자녀, 다음세대 회복

8. 가정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혼가정 (홍순성)
9. 자녀신앙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녀 신앙 (방승호)
10. 다음세대 회복 / 미주 한인교회 한인 1~2세 정체성 (박현수)

• 기부자 명단

팬더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센트럴신학대학원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에 참여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부금은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은정, 안창일, 방승호, Debra Carter, Hephzibah Y. Choe, 최범균, 최성봉, 정화영, 한총희, 한수상, Kathy Heisler, 홍순성, 홍승민, 현은아, 장성희, David Jeon, 정신찬, 정선중, 정화영, 조장호, 전승호, Grace Kim, 김효준, 김형중, 김재웅, 김형균, 김지훈, 김진규, 김국호, Joshua Kim, 김경판, 김미라, 김미송, Sam Kim, 김상진, 김수정, 김성정, 김영준, 김정 백설, Benjamin Koo, 권석균, 이범훈, 이돈하, 이경희, 이행보, 이한묵, 이재희, 이재호, 이재용, 이정민, 이연승, 임무영, Paul Moon, 노준엽, Gun Oh, Abraham Park, 박찬영, 박화춘, 박인자, 박규석, 박사무엘, 박영호, 노세영, 서정곤, 서장원, 신광섭, John Suh, 엄경미, 이경숙, 윤대식, 유형재, 유양선, 윤병관, David Yun, 윤영혁, Xiaohong Zeng, Ahnil Foundation, Disciple Baptist Church,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New Song Church(박인화), US Mother School(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외 무명다수

신입생 스토리 : 이 희정 (M.Div.)



저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을 꾸려 가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부모님이셨지만, 언니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셔서, 언니는 교회를 다녔고,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카톨릭신자

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은 보내고 대학을 준비하던 무렵에 건강하던 남동생이 갑자기 골수암에 걸리게 되었고, 길고 긴 암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울감 가운데 있었고, 결국 2년 간의 투병을 끝으로 죽음을 맞게 된 동생으로 인해, 깊은 상실감과 원인모를 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언니의 권유로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따뜻하고도 특별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조금씩 극복하고, 절망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며,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만남이 저의 첫 신앙생활을 열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만난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20여년간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는 뜨내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년마다 옮겨 다니며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 교회 생활과, 잦은 아이들의 전학으로 인해 가족 모두는 쉽지 않은 생활을 했고,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은 엄마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힘에 부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삶의 변화 속에서 저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자 아침마다 큐티로 말씀묵상을

붙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읽은 짧은 말씀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군지역은 변변한 교회가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열악한 신앙생활 조건속에서도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음에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그곳에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하였고, 성가대와 성경공부, 주일학교, 여전도회 등 다양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 속에서 상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믿음이 적고 이해가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는 나눔의 사역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함께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 JDS 제자훈련과 예수전도단에서 진행 된 DTS 훈련과정에서 함께 학생과 간사로 섬기며, 이러한 회복과 하나됨의 사역에 남편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회복케 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국의 신학대학원 M.Div. 과정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곳 어스틴에 정착해서 교회를 섬기던 중, 교회로부터 오히려 제가 먼저 영유아부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를 승낙하긴 하였지만, 사역자로서 신학적 갈망은 컸습니다. 그 때, 저희 교회를 통해 센트럴 신학교를 알게 되었고, 저는 먼저 Diploma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에서 예배와 음악, 일과 소명, 신약학 등 귀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배움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사역자로서 좀 더 깊고 전문적인 신학과 목양적 이해가 필요함을 느꼈고, 건강하고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서 M.Div.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M.Div. 과정을 졸업한 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다운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양육으로 세우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따뜻한 나눔과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 않고,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쁘고 편하게 사용하시는 길 그릇과 같은 주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 스토리: 이경희 (M.Div. '17)



이경희(지나)님은 성령님께서 이경희님의 삶과 사역에 변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을 때 시카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희님은 이민 가족과 노인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분별하려 애쓰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어려웠던 이 시기를 지나가며 이경희님은 40일 동안 기도에만 힘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40일 동안 하루 두번씩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40일 기도 가운데 이경희님은 센트럴의 한국어 목회 신학 석사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해 가을 입학하였습니다. 2017년 이경희님은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공동체를 돕는 사역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경희님의 일터는 바로 시카고에 위치한 중독 재활 센터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주 56명이 넘는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센트럴에서에서 받은 경험과 교육, 특별히 선교적 교회와 성육신 신학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경희님이 만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여 실패자로 느끼며 패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경희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와 성육신 신학을 이해한 이후로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과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희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시카고에 위치한 센트럴의 한국어 프로그램 사이트 디렉터로도 섬기며 신학 연구 프로그램의 디플로마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재활센터에서 만나는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보살핌은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이경희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각 사람의 존엄성을 지지합니다. 이경희님은 그녀의 사역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의] 부서짐이나 상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더 강력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Soul Food



A REFLECTION FROM

Sung Min Hong 홍승민

Supplemental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

아직도 여전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비드-19 판데믹이 그나마 나에게 가져다 준 일상의 자그마한 변화는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둘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아내와 나는 넷플릭스 취향이 무척이나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즐겁게 보는 장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음식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이다. 최근 “심야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함께 보았다. 이 드라마는 본래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2009년 시즌 1을 시작으로 방영되기 시작해서 시즌 3를 마친 후 다시 “심야식당: 도쿄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 시즌 4, 5를 방영하였다. 매 에피소드가 25분 내외라 보기에 도지루하지 않았기에 더 재미있게 본 것 같다.

심야식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잠드는 시간인 자정 즉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영업하는 특이한 식당이다. 많은 이들이 찾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마스터(master)라 불리는 심야식당 주인의 확신에 찬 독백처럼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의 단골이 된다. 이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트랜스젠더인 술집 사장, 스트립 댄서, 가족 하나 없이 은퇴하여 갈 곳 없어 이 식당의 단골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늙은 아저씨, 야쿠자 두목과 그 부하,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늘 이곳에서 모이는 노처녀 세 명 등 사회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아니 도리어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집을 매일 찾는 단골이다. 이들 외에 독특하고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매 회의 주인공 혹은 주인공들로 등장한다.

심야식당이 단골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이든 재료만 있다면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

들기 쉬워 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무척이나 낯선 음식이라 다른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았거나 겨우 들어보기만 한 음식마저도 마스터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척척 만들어낸다. 어떤 이는 막 한 밥 위에 버터를 녹여 간장을 뿌려 먹는 버터밥을, 어떤 이는 우리가 어려서 먹었던 비엔나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 굽는 요리를, 어떤 이는 카레 라면을, 어떤 이는 감자 샐러드를, 또 어떤 이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한다. 매 회마다 등장하는 각종 음식들은 사실 요리라고까지 부르기도 어려운 일상의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문하여 먹는 음식들에는 그들의 삶에서 떨려야 떨 수 없는 여러 사연들이 존재한다. 바로 그 사연들이 그들이 주문한 음식과 어우러져 “심야식당”을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매 회 주인공들이 주문하는 음식들이 바로 그들의 서울 푸드이기 때문이다.

서울 푸드란 한 입 먹으면 내가 비로소 집에 왔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이다. 한 입 먹으면 왠지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음식,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 지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심야식당”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교사 집안에서 야쿠자의 길을 선택한 아들이 어머니를 뿔 낫이 없어서 음식으로 그 그리움을 대신한 서울 푸드였고, 수십년간 연락하지 않고 아들을 버렸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이어주는 서울 푸드였으며, 일본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 전문가가 어려서 먹던 추억의 음식이었고, 서먹했던 두 친구의 우정을 몇 십년 만에 이어주는 끈끈한 서울 푸드였다. 이들의 삶과 사연들 속에 그 음식들은 추억이고 기쁨이고 슬픔이며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고향의 맛, 엄마의 맛, 아빠의 정, 형제에 대한



출처: <https://images.app.goo.gl/WKTxLjvHx2u7mTK36>

그리움, 그리고 우정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마스터는 이들의 사연을 묵묵히 들으면서 그 기억 속에 존재했던 소울 푸드를 추억과 함께 현실에서 맛보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드라마 내내 말 없이 주문하는 음식을 훌륭히 만들어 내어 상처 입은 이들을 음식으로 위로해 주는 마스터는 이 드라마의 멋진 주인공이다. 이 마스터를 중심으로 좁디 좁은 심야식당 안의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살아간다. “심야식당” 모든 에피소드를 아내와 함께 그야말로 정주행하면서 이들의 스토리와 음식이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멋지게 표현되어서 “심야식당”에 나오는 음식들 몇 가지를 아내와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맛이 있었다. 이야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기분이 퍽 남달랐기 때문이다.

주는 특별한 감동은 사회에서 무척이나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참 가난하고 어쩌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는 소외된 이들이 심야 식당 안에서 다른 평범한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 지으며, 힘을 모아 그들을 돕기도 하고, 마침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들이 해결되면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한다. 심야식당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술잔을 기울인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울 푸드를 함께 먹으며 은은한 위로를 나눈다. 평범함과 평범하지 않음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심야식당이다.

“심야식당”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문턱이 높아진 곳이 되어버렸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발 붙일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인생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참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심야식당이 아니라 뭔가 드레스 코드가 필요한 곳, 격식과 예의가 차려져야 하는 곳, 따뜻함보다 정확함이 필요한 곳이 되어 버렸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소울 푸드를 나누며 인생의 고단함과 추억을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체인점처럼 얼른 먹고 금새 일어서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다. 소울 푸드를 먹으며 삶의 고됨을 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들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심야식당”의 마스터가 소외되고 별 볼일 없는 단골들과 손님들의 사연을 들어주며 음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낯선 모습이 된 것이다.

사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가 짐을 함께 지는 곳이다 (갈 3:28; 6:2). 그 곳은 성별과 나이, 계급과 계층 그리고 어떤 구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가장 평범한 자들이 모여 평범하지 않은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평범하지 않았던 주변부의 사람들을 품어 주신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회의 단골로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찾아온 이들의 아픔과 사연을 들어주며 함께 삶을 나누어 가는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소울 푸드의 추억을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그리워 하는 추억의 빈 공간을 참 소울 푸드인 예수로 채워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먹고 소유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심야식당이어야 한다. 말없이 사연을 들어주며 소울 푸드로 참 위로를 전해주는 마스터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의 소울 푸드는 무엇일까 생각하니 쉽게 답이 떠오른다. 부대찌개였다. 수련회에서 돌아올 때,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 가족 넷은 웃고 울고 떠들고 치유된다. 꼭 심야식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말없이 지켜보시며 슬그머니 웃으시기에 그렇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대찌개를 먹어야겠다.

준이를 통해 느껴진 지으신 이의 마음 - 하숙자 (M.Div.)



교회에 준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귀여운 남자 아이가 있다. 준이는 타고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교회 오는 날은 자신이 가지고 놀던 아끼는 장난감을 교회 유아들에게 주기 위해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온다. 교회 행사로 수영장을 갈 때면 엄마가 별도로 준이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유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래 아이와 놀지도 못하고 준이의 눈은 항상 어린 유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어느날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왔다. 그 가정의 자녀는 유아 및 유치부 어린이 모두 3명이었다. 준이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세 아이의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우면 안되나요?’ 엄마는 준이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엄마는 준이의 애뜻한 마음이 때론 걱정도 된다. 준이의 부근에는 어린 유아들이 울망뿔망한 눈으로 준이의 눈을 쳐다 보며 늘 준이 주변에 모여서 논다. 난 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이 어린 4학년 남자에게 그런 교육과 훈육으로 긍휼의 마음을 심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하나님이 다양한 외모와 다양한 내면의 성격으로 사람을 만드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태어나는 시대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타고난 은사도 다르다. 그렇다면 누구는 선진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후진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옹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 투박하게 마구 굴리며 함부로 사용되어 지게 하고, 청자,백자도 만들어 왕이 기거하는 내실의 장식기로 사용되어지게 용도를 생각하며 만든다. 그 기준은 그릇을 빛는 옹기장이 마음이다. 이렇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마음이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준이를 통해 주변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머릿 속에 떠 올랐다. 그리고 늘 유순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떠 올려졌다. 잘 알다시피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타고 난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이기적이고 ‘싫어’ 라는 표현을 곧 잘 한다. 우리 주변에 늘 유순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만 내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인가? 교회안에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며 그들과 논쟁이 잦고,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회피하고, 자신을 표시없이 은근히 드러내기 좋아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타인을 음성적으로 하대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과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두 부류로 구별할 권리가 없다.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와 닿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되어 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확률적으로 준이처럼 순하고 선한 긍휼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주변사람들에게 늘 불편함과 부정적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부터 더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부류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후자가 타고난 성격으로 인해 높은 강도의 힘든 자기 절제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후자가 곱게 순화되고 다듬어지기 까지는 더 오랜 세월과 더 많은 고통도 뒤따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부정적 성격의 특징이 많은 소유자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를 피하고 미워하기보다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긍휼의 시각과 그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부류 모두의 개인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속한 조직 전체가 비로소 조금씩 변화되어 긍정적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로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섞어 놓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좋은 계획 아닐까?